

창세기 3장 16절: 범죄 후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Hans-Jörg Ronsdorf · 2021년 5월 · 2026년 10월 개정

성경의 "3장 16절"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3:16만이 아니라 모세의 첫 번째 책에 있는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눈에 띄는 "3장 16절"이 더 있습니다. 물론 우연입니다. 장은 13세기에, 절은 16세기에 와서야 나중에 나누고 번호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준 뒤에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뜻하지 않는가**입니다. 그것이 중요한지는 제 글의 끝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의 번역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자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네 임신의 수고를 크게 더하리니, 너는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겠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Elberfelder CSV, 독일어 성경 번역본)

그리고 여자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네가 임신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많은 수고를 주리니, 너는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그는 네 주인이 될 것이다. (Luther 2017)

저는 이 말씀에서 늘 이렇게 이끌어 내고 해석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의 범죄를 벌하셔서 출산이 지나치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하와는 남편에게로 향할 때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을 만난다. 루터 번역의 문자적 의미("그는 네 주인이 될 것이다")를 따르면, 이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위계 질서입니다. 남자는 머리이고, 여자는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일종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자를, 그리고 그녀의 행위의 무게와 동기와 죄책을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도 (늘 그렇듯이) 번역이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번역에서 **수고와 임신**은 서로 연결되거나 서로 관련된 두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Einheitsübersetzung이나 Zürcher Bibel(독일어 성경 번역본)로 읽으면 중요한 점이 눈에 띕니다.

여자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수고를 마련하고 **또** 너는 자주 임신할 것이다. 너는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는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Einheitsübersetzung)

여자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또** 네 임신이 많아지게 하리니, 너는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Zürcher Bibel)

마지막 두 번역에서 수고와 임신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수고와 임신입니다.

히브리어를 읽는 분이 제게 확인해 주었듯이, 분명하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내가 네 수고 그리고(UND) 네 임신을 크게 크게 더하리라 ...".

어떤 자유로운 옮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네 고된 일과 네 임신을 두 배로, 여러 배로 늘리리니, 너는 고생하고 애를 써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이 특징에 주목하게 된 것은 브루스 플레밍(Bruce Fleming)의 책¹ 덕분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내가 반드시 (1) 밭에서 하는 네 고된 일과 (2) 네 잉태를 많게 하리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제 그들이 죽을 존재가 되고 타락한 지금, 그녀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애써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 [사랑의] 갈망은 네 남편을 향[한다]

그러나 그는 [반역하여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너를 다스릴 것이다.

16절 앞부분의 이 구별이 왜 중요할까요? 이 구별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의 어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더 중요하게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하와에게는 어떤 저주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먼저 하와는 농사와 관련해서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으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가축 기르기와 생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손일도 여기에 속합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이런 형태로 세 번만 나오며, 언제나 밭에서 하는 고된 일을 뜻합니다. 아담도 그렇게 듣습니다(창세기 3:17).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라멕도 아들 노아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창세기 5:29).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아담은 금지 명령을 다 알면서도 하와에게서 열매를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아담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주는 땅에 떨어집니다. **에덴에서 다시 한 번 은혜입니다.** 그 결과는 먹을 것을 얻는 데 따르는 수고입니다. 에덴과 달리 삶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와도 같은 땅에서 살고, 두 사람은 부부로서 함께 삶을 꾸려 가야 하므로, 아담과 같은 수고가 하와에게도 닥칩니다. 그 이유는 하와가 아니라 아담입니다. 그의 행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문장의 둘째 부분에서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나옵니다. 임신이 많아질 것입니다!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창조 명령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범죄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후손이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후손 가운데 한 분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는 것입니다. 뱀이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네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 말씀을 원시 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protevangeliu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귀에게 하신 것이며, 마귀에게는 분명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뱀은 하나님께서 후손이, 곧 여자의 씨가 있게 하실 것을 확실히 하시고 보장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와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리고 동산에서 함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의미,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의미를 얻게 됩니다.

아담에게 농사가 그렇듯이 하와에게는 자식을 낳는 일이 수고로울 것입니다. 타락 이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와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아직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습니다. 뱀과 아담은 저주와 형벌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전이 있고, 부정적인 이후가 있습니다. 하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든 바꾸시고 출산을 나쁜 일로 만드신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료의 도움이 없을 때, 출산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성들 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여성들을 돕는 분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디모데전서 2:1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동산에서 하와와 이야기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힘든 일(또는: 괴로움)을 겪나니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요,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또는: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16-19절에서 저자는 인간 존재의 고됨, 특히 삶의 창조적인 측면인 번식과 먹을 것의 생산을 따져 봅니다. 예전의 걱정 없던 삶에 이제 수고가 섞입니다. 좋은 것(후손, 먹을 것)이 나쁜 것(수고)과 함께 옵니다.

관계의 파탄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의도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두 히브리어 단어 **ezer kenegdo**로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위해 정해졌는지 묘사하십니다. 그들은 몇 시간 차이를 두고 서로를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둘이 함께하자마자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함께 사는, 열매 맺고 만족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 **ezer kenegdo**란 대등한 사람, 짝이 되는 상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의 강점을 나누어 서로 돕기 때문입니다. ... 이 단어는 서로 마주 서 있는 두 사람의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단어는 ‘마주하여’(vis-à-vis), ‘분명히 맞은편에’, ‘상응하는’ 또는 ‘동등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²

하나님의 이 뜻은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에게 수고가 닥치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닥칩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와는 자기 아이들의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그에게 자신을 말기고, 그의 곁에 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더 강한 남성이 하나님의 위임 없이 지도하는 역할을 차지합니다. 여자 위에 군림하고, 여자를 이용하고 억압합니다. 세계 역사는 이를 수없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어디서나 거둬 있었고 지금도 있는 예외들은 빼고 말입니다.

하와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와는 속았습니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자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자, 그녀는 가장 큰 죄책이 있는 자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뱀입니다.

[창세기 3: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에게서 거리를 두고 뱀을 고발합니다. 하와가 눈사태를 일으킨 그 큰 범 죄는 꾀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기가 먹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아담의 태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녀의 범 죄의 정도는 그의 범 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13에 기록된 대로 여자에게 물으셨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녀는 핑계 없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그녀는 원망 없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그녀는 남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물으시는 것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다. 새로 얻은 지혜로 그녀는 악을 알아보고 말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으로 그녀는 악한 뱀이 자기를 속인 근원임을 드러냈다. 그리고 속는 동안 자기가 저지른 악을 고백했다. ‘내가 먹었나이다.’ 그녀도 방금 남자가 한 것처럼 더 많은 악을 저질렀는가? 아니다. 그녀는 자기와 함께 있던 남자를 탓했는가? 아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탓했는가? 아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그녀에 대해 들려주는 내용은 그녀가 흔히 묘사되는 방식과 다르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이 잘못된 묘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³

에덴에서 두 사람은 각각 한 입씩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의 정도는 달랐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은 같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야말로 반항적으로, 더 나아가 고발하듯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3: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먼저 죄책을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마치 창조주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거의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아담은 하나님보다 뱀에게 더 가까이 서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하와에게 더 중요한 역할도 주어집니다. 그녀가 씨를 갖게 될 것입니다(아담이 아니라). 그 씨가

모든 것을 뒤집을 것이며, 새롭고 더 나은 에덴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유혹하는 자가 없을 그곳 말입니다.

유혹하는 자

뱀은 공격한 뒤에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과 말씀하시며 그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곤경에 빠졌다는 것을 너도 알 것이다! 나는 여자가 방금 한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참되다. 너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를 속였으며, 그녀는 방금 네 행위를 드러냈다. 나는 그녀와 너를 서로 맞서는 상대로 확정한다. 너는 그녀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후손은 너를 멸할 것이다. 네 머리를.

사탄은 유혹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여자와 남자를 모두 꾀었습니다.⁴ 창세기 3:1-5의 히브리어 본문은 그가 "너희"라고 말할 때마다 복수 대명사를 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시 말해 그는 여자에게만 말을 건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희 둘, 너희 모두, 너희 두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진리를 비뚤니다! 그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는 맞제안을 합니다. 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는 마치 그녀에게 좋은 지식을 주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가 실제로 주려는 것은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⁵

요약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되어 왔는지가 어느 정도 분명해졌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해석, 또는 해석의 안경에 따라 하와에 관한 신약 본문들은 어떤 "색조"를 띠게 됩니다. 그런 본문은 두 곳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1:2-3]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디모데전서 2:12-15]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⁶

속임을 당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위험입니다. 하와가 그 한 예입니다. 여자들이 더 쉽게 속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결론은 본문에서 억지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와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인상 깊은 예입니다. 미혹을 받고 속는 것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들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 곧 남자와 여자가 다 문제가 됩니다.

타락에 대한 책임은 아담이 져야 합니다. 하와는 희생자였습니다(물론 그럼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아담은 가해자였습니다. 그는 “고의로”(직역: “손을 높이 들고”) 죄를 지었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알면서 그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아니라 그가 타락한 인류의 머리가 됩니다(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15장). 비록 하와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결의 세 존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에서 남자를 사탄과 한데 묶으신다.⁷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이 두 반역자와 따로 다루신다. 그녀는 고의로 반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핍을 받은 뒤에야 불순종하게 된다.”⁸

하와와 그녀의 행위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성을 보는 시각을 물들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것을 위해 쓴 것입니다. 맨 처음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Hans-Jörg Ronsdorf, 2021년 5월 25일 hj-ronsdorf@t-online.de

주

1. Fleming, Bruce; Fleming, Joy; Hagemeyer, Joanne. The Book of Eden, Genesis 2-3: God Didn't Curse Eve (or Adam) or Limit Woman in Any Way. Kindle판, 96쪽.
2. Fleming, The Book of Eden, 33쪽.
3. Fleming, The Book of Eden, 56쪽.
4. 바울이 하와가 속았다고 두 번 말하는 것은 하와가 먼저 말하고 반응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고린도후서 11:3; 디모데전서 2:14).
5. Fleming, The Book of Eden, 54쪽 참조.
6. 이 구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쓴 적이 있습니다(제 책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Frauen, vergebt uns!) 6.3장). 이것은 여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보편적으로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가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의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는 안 되며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모임에서도, 다른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둘째 편지에서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헬라어: anthropos, 사람들: 남자와 여자)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모임에서든, 아니면 그냥 어느 곳에서든 배우려는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바울은 여기서 여자들에게 가르치라고 권할 때 자기 자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에베소에서 한 여자 또는 몇몇 여자가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남자들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7. 이는 뱀에게 하신 말씀과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서로 비슷하다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8. Fleming, The Book of Eden, 110쪽.